국립공원 천은사에 '상생의 길' 조성됐다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후
탐방로·편의시설 등 1단계 개방
무장애 시설·나무 교량 등 눈길

천은사 상생의길 생태전망대 전경.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 천은사가 입장료 폐지 1년여 만에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한 '상생의 길'을 조성, 개방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천은사 상생의 길 탐방로 1단계 2.9㎞ 구간을 조성해 지난 8일부터 개방했다고 밝혔다.

상생의 길은 지난해 4월 '천은사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에 따라 천은사 인근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탐방로 1단계 구간 중 0.7㎞는 장애인, 노약자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시설로 조성했다.

산림욕을 즐기면서 자연·문화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친화형 탐방로, 나무 교량도 마련됐다.

탐방·편의시설 뒤편에선 고찰 천은사와 천은제 수변 공간, 소나무숲길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상생의 길 탐방로 2단계 구간인 천은제 제방구간 0.4㎞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1구간과 2구간 총 3.3㎞를 이어 순환형 탐방로를 완성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이 완료되는 대로 상생의 길 개통식도 진행한다.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인 천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리산 노고단을 가려면 천은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천은사를 들르지 않는 지리산 탐방객들도 입장료를 내야해 입장료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며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와 천은사 등 8개 기관은 지난해 4월 천은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탐방로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고시를 제정하고, 올해 4월까지 상생의 길 탐방로를 조성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개방되는 상생의 길은 30여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상징물"이라며 "국민들이 한층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탐방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환경부, 10개 제품 적발 행정조치

일부 제품 인체 유해 우려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살균제 10개 제품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그린그램 베이비',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 등 이다.

이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금지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 후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계 멸종위기 저어새 순천만서 관찰

최근 순천만 갯벌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가 순천만 갯벌에서 관찰됐다.

나만의 '주치의'로 마음치유하세요
동구, 전문의 무료상담 등 서비스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 갇혀 살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동구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우울·불안·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진데 따라 마련됐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마음건강 주치의'는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위촉해 운영된다.

위촉된 주치의는 ▲정신건강 문제 상담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 ▲치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활형 공공일자리 300명 선발
북구, 우리동네 청결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위기 탈출과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청결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부터 18~70세까지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참여자 300여명을 선발했다.

이 사업은 총 17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북구내 쓰레기불법투기 취약지역 정비 및 감시, 재활용품 재분류, 공동주택 폐건전지 수집 활동을 실시한다.

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시간 홍보물을 배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및 저탄소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안내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단도 운영된다.

이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작업과 청소기동반을 활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민원도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 빅데이터 대국민 공모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환경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 사업 빅데이터 기반 및 센터 구축사업' 중 하나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물·자연 등 환경 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사업 모형(모델) 기획 및 개발방안 ▲환경 매체 간 또는 문화·산림 등 융합 정보(데이터)의 기획 및 결과물 등 이다.

공모에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서비스·사업 모델 개발' 분야는 대학생 전형과 일반·기업 전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